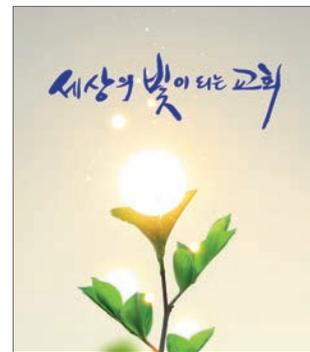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에스겔 37:1~6)

##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의 청지기로

<청지기 주일>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의 삶 결단

“주님은 올 한해 저에게 권사로, 실업인선교회 부총무로, 회사의 대표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셈하는 날이 올 거라는 뜻이겠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정자 권사(1교구)는 다짐한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다. 소명(召命)은 ‘부름 소’에 ‘목숨 명’, ‘불러주신 자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다.

지난 1월 9일 청지기 주일을 보내며 광림의 성도들은 올 한해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의 삶을 살 것을 결단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고전 4:1)이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변함없는 신

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광림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임원전지훈련을 연다. 올해도 지난 1월 5~6일, 12~1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2022년 표어인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겔 37:1~6)의 취지를 설명하며 직분자들이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며, 말씀과 기도, 경건의 생활습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향력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믿음의 다음세대, 말씀으로 양육

이어 “다음세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교회학교 축소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응하여 아동 보육과 돌봄을 확대하자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광림교회학교와 광림어린이집, 샤이닝 키즈, 스쿨, 유스 등을 발전시켜 방과 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전인적 교육에 힘쓸 것 이라고 했다. 또 청년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 꿈과 비전이 구체화되도록 도울 것이다”고 했다.

2022년에는 10개의 국내 지성전과 10개 해외 선교센터 설립 비전에 따라 선교의 영역이 더욱 확장된다.

동탄 지역에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며, 이미 완공되어 봉헌을 앞두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와 <잠비아

선교센터>의 봉헌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중앙아프리카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세워진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2022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사명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크리스천은 모든 삶이 예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 물질, 사람 등을 맡기시며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권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 전달될 때 주님은 더욱 기뻐하신다.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간 광림의 성도들은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1)

이선아가자

# 함께하시는 예수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한복음 14장 16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것은 저마다 예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리고 이에 열광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훗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자신들에게 찾아올 명예와 권세에 대한 기대로 크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요 12:13)라고 외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날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제자들이 기대했던 명예와 권세가 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랐던 스승마저 잃게 되었으니 제자들은 크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고 있었는지 잘 아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생명의 주를 따르기로 결심했으나 오히려 더 큰 욕망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섬기려고 주 앞에 엎드리기로 했으나 더 큰 섬김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 교만한 모습을 향해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으신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 첫째, 위로와 약속으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보다도 죽음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현실적이었기에 부활은 상상하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두려움 앞에 흔들리고 좌절하였습니다. 당장 오늘의 마주한 사건과 문제들이 예수님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1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위로이자 동시에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실적인 생각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것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는 처소를 예비하라 가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요한복음 14장 1~31절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 내가 진실로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요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로 인해 낙심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1절)

## 둘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길이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길은 관계성을 의미하며,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닌 오직 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된 진리와 율법과

종교적인 제도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고 억눌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된 진리는 사람을 억압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와 진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아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내 지식과 관습, 사상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조명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관습적이고 종교적인 제도와 죽은 신앙의 무거운 짐과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며 곧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참 생명을 소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셋째,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

믿음은 우리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아버지께 가신다고 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16절).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임종 직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변화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 2022년 신년예배 및 임명식

남선교회총연합회 · 여선교회총연합회 · 실업인 선교회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남·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 회원들은 새롭게 주신 사명을 다짐하는 2022년 신년예배를 1월 15일 장천홀에서 드렸다.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가 주최한 신년예배는 교역자들과 본당과 지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시상, 임명식을 가졌다. 엔테오스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한 1부 예배는 여선교회총연합회장 이화열 권사의 사회와 실업인선교회장 권후원 장로의 기도로 진행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위대한 나그네 길'(요 17:15-22)이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파송 받은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 받은 자는 나그네의 길에서 믿음의 용기로 악을 넘어어서서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

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으로 교제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은혜로 사명 감당할 때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각 선교회의 전년도 우수선교회, 개근선교회, 우수회원 시상과 이임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신임 임원들의 임명식과 인사가 있었다.

신년 인사에서 남선교회총연합회 박기연 장로는 "올해 목표를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남선교회'로 정하고, 127개 개체 선교회를 통해 한마음으로 복음, 선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신 사명을 믿음과 감사로 감당해 빛의 중심 남선교회가 되겠다"고 했다.

여선교회총연합회장 이화열 권사는 "주신 선교 사명에 집중하며 '뜨겁게 전도하여 채우고 세우는 여선교회'로 467개체선교회와 임원들이 하나 되어 동탄광림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며,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실업인선교회장 권후원 장로는 "실업인선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이다. '생명적 신앙으로 부흥 성장하는 실업인선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신·구세대가 함께 목회방침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길 원한다"고 했다.

신년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올해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선교 사명을 통해 생명적 신앙을 이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상희 기자

## 포토 뉴스



### 성가대 임명예배

1월 16일 주일 저녁예배에서 성가대원들의 임명식이 있었다.



### 여선교회총연합회 1월 월례회

1월 23일 본당에서 여선교회총연합회는 새해 첫 월례회를 개최했다.



### 남선교회 스테반 선교회장(신임) 교육

1월 23일 사회봉사관에서 신임 스테반 선교회장 교육이 열렸다.

## 담임목사 동정



- 1/12-13 임원전지훈련(권사)
- 1/13 이슬람연구소 총회
- 1/15 남·여실업인선교회 신년하례회
- 1/16 광림복지재단 이사회  
성가대임명예배
- 1/19 CBS제주 신년목회세미나
- 1/20-21 서울남연회교역자금식성회
- 1/21 경기연회 준회원교육
- 1/22 4선교구 영성수련회
- 1/23 사단법인광림 총회
- 1/25 이단대책위원회 장로세미나 및  
기획위원회
- 1/26 감리교군선교회장 이취임예배
- 1/27 감리교병원원목 교례회  
남연회평신도지도자신년기도회
- 1/28 아펜젤러선교센터 운영위원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 서울남연회 교역자, 신년 금식 성회 가져



서울남연회(감독: 김정석 목사)는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광림수도원에서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신년 금식 성회를 열고 '코로나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서울남연회와 교회가 되길 간구했다. 약 2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이번 성회는 새해를 시작하며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금식 성회를 한다는 것에 주목을 받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식성회가 깊은 영적 교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목회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 감리교회와 소속된 교회, 나아가 각자 성도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를 개최한 김정석 감독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2022년은 코로나를 넘어 교회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서울남연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금식,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한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으로 준비할 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는다"라고 금식 성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이번 성회에서는 3번의 집회와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었고, 집회 중간은 각자 개인의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집회는 총부원회 안정균 감독, 하늘중앙교회 유영완 목사, 협성대학교 이세형 교수가 각각 말씀을 전하였으며 새벽기도회에서는 지구촌제일교회 담임 남희우 목사가 맡아 진행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김정석 감독의 집례로 성찬식이 있었으며 감리사들이 합동 기도를 하면서 신년 금식성회 집회를 마무리 했다.

이득섭 기자

내 인생의 말씀

믿음의 선포가 축복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 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28)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던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열두 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정탐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했으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두려워 떨며 말할 때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음성을 들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3년 전 큰 아들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문과 출신이라 취업의 문이 좁아, 지원하는 곳마다 떨어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저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 회사가 우리 아들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본다'며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년이 거의 다 가고 12월쯤 두 곳의 은행에 최종 면접을 보고 기다리는 중 먼저 한 곳에서 불합격의 통보를 받고 약간의 실망스러움이 있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 주실 거야' 하면서 위로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전 마지막 한 은행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가족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 날의 흐뭇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올해 축복의 말을 많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양미옥 권사 (여성교회총연합회 A에스더 선교부장)

“말씀과 삶을 해석하며 본질로 돌아가자”

〈6선교구 연합속회〉 모이기에 힘쓰는 모범적인 선교구



지난 1월 9일(주일) 12시30분, 6선교구 성도들은 사회봉사관 4층에서 연합속회로 함께 모였다. 새로 개편된 6선교구는 16(대치동, 삼성2동), 17(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18(분당, 성남, 광주)교구로 구성된 지역이다.

연합속회는 1부 예배, 2부 임원 소개 및 경조총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약 150여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되고 신앙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박중섭 목사는 '해석'(단 2:30)이라는 제목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변

하지 말라,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2022년 비전에 대해 "저희 6선교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생명적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던 중 '해석을 잘 하자는 결론을 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삶을 잘 해석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그 실천 방안으로는 '6선교구 Day'를 만들어 날짜에 '6숫자 들어간 날은 참여하여 말씀 듣는 시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숙한 자세로 영적씨름을 부단히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올 한해 6선교구

성도님들이 예배자리에서 말씀을 해석하여 삶에 적용하고 광림교회와 주의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6선교구 연합회장 유시영 권사는 "지난 한 해 우리 6선교구는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하반기 교구와 선교구 이동이 있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구성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소통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범적인 선교구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연합속회 1부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선교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2부는 6선교구의 교역자를 비롯하여 장로, 교구장, 연합회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각 교구별로 경조총회의 시간을 가지며 2022년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경조총회 시간에는 특별히 교역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스마트폰 그림통을 선물하며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표시하는 작은 이벤트를 가졌다.

백명순 기자

〈아펜젤러 선교사-4〉

아펜젤러 선교사의 평양 선교여행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북 지역 답사여행 중에 촬영한 사진

1887년 아펜젤러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교회를 세울 곳을 답사하고자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887년 4월 13일, 세관에서 일하는 헌트 씨와 함께 평양으로 향했고, 서울을 떠난 지 11일 만에 평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이동수단은 가마나 말, 또는 조랑말이었습니다. 가마는 보통 네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두 사람씩 교대했습니다. 가마를 메는 사람 중에는 얘기꾼이 있어서 여행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고, 때로는 허풍을 떨어서 폭소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보통 외교관들은 가마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는 업무를 위해 가끔 가마를 타지

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가마꾼인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가마를 타지 않고 말이나 조랑말을 탔다고 합니다.

평양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다. 대동강에서는 강에 다리가 없어 배로 건너야 했고, 배에 오른 말이 이동용을 쳐서 배가 뒤집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여정 중에 숙박한 여관에서는 빈대와 벼룩에 시달렸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아펜젤러 일행은 평양 감사의 관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펜젤러 일행은 감사의 호의로 평양 거리를 안전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펜젤러는 평양을 돌아본 후 백성의 어려운 삶과 도덕적인 타락, 빈부

격차 등 조선의 실상과 백성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선교의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아펜젤러는 평양을 방문한 첫 번째 선교사로 이후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1889년에 스크랜턴과 함께 세 번째 평양을 방문한 후, 의주 출신 매서인 한 사람을 평양에 파송했습니다. 이 매서인이 평양의 첫 한국인 개신교 전도인이었습니다. 이후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외 많은 교파도 평양지역 선교에 힘을 쏟았고, 선교 초기부터 연합 사업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펜젤러로부터 시작된 평양 선교는 많은 열매를 맺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지만, 훗날 공산화되고 전쟁을 겪으며 많은 감리교 지도자와 성도의 수난과 희생도 뒤따랐습니다. 해방 후 월남한 평양 감리교인을 중심으로 남산교회, 시온교회 등의 교회를 서울에 세웠으며, 서부연회가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은 마을과 시내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오게 되리라. 우리 기독 학생들이 이 나라 곳곳에 흩어져 넘쳐나게 되면 이 나라 전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헨리 아펜젤러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 2022년 청년부의 비전 공유, 헌신 결단의 시간

〈청년부 임원전지훈련〉



광림교회 청년부는 1월 15일(토) 광림수도원에서 2022년 청년부 임원전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청년부 임원(교구장, 지구장, 속장, 사역팀장)들이 참여하여 2022년 광림교회 청년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임원으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임원들이 교외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는데, 이번 임원전지훈련을 통하여 교구 임원들이 교제를 나누면서도 함께 한 해를 준비해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구별 모임 시간 후 임원 세미나와 간증의 시간을 가졌는데, 세미나에서는 지영호, 박현서, 민다정 교구장들과 유현수 사역팀장의 특강으로 청년 속장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전달하였고, 임원 간증의 시간에서는 임채리 팀장과 김태연 지구장, 최인혜 지구장이 사역팀과 속회를 섬기며 얻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22년 새롭게 헌신하게 된 신입 임원들의

한 줄 평입니다.

오민준 속장은 “오랜만에 수도원에 방문해서 임원전지 훈련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청년부 행사를 드리다 보니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전했고, 이의진 속장은 “속장으로 섬기고 있거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신입 속장이 되어 교구모임에 참여하지 얼마 안돼서 아직 모르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교구 모임 시간을 통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정용환 속장은 “속장으로 임명되고 청년부 전체 임원들과 함께하는 첫 자리였는데, 세미나와 간증 시간에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들으며 도전이 되었고 든든한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022년 청년부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선교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도전합니다. 광림의 청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공동체로 쓰임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루살렘 선교는 강남지역을 섬기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마켓을 통해 교회 인근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유대 선교는 감리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여름과 겨울에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국내선교와 사랑의 이불나눔을 통해 지역교회를 도우며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 헌신합니다. 사마리아 선교는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청년 세대를 살리고, 땅끝 선교는 열방을 섬기는 것으로, 해외 교회 100교회 건축 비전을 이뤄갑니다. 이를 위하여 쓰임 받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 신앙 간증

### ‘속회’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선교국 2교구 장성민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영광스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태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의무감에 주일에는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저는 2020년 4월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나오고 있던 저에게 청년부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림교회 청년부에 새신자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새신자 교육을 은혜 가운데 수료한 후 교구와 속회에 배정받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엄~청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속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부흥’입니다. 저희 속회는 2020년 8월에 편성되었는데, 초기에는 보통 4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속회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던니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셔서 지금은 보통 9명 정도가 모이고, 타이밍이 잘 맞으면 12명까지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속원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다가, 진심을 나누어주는 때가 오면 가히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정말로 감사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속회에 기도제목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정말 거의 다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함께 기도드리면 모두 치료해주셨습니다. 또한 각자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심’입니다. 속원들과 속회로 모여 나눔을 진행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마 예수님이 항상 함께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속원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예쁘고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저에게 속회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림교회 모든 속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성민 성도(청년부)

## 2022년 1학기 광림장학생 선발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 육성을 위한 ‘광림장학금’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 육성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광림장학위원회(위원장: 신성수 장로)는 2022년 1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교 1학기 이상을 수료하였으며, 지난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인 대학생으로 광림교회 출석가정의 학생이거나, 감리교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자녀, 그리고 서울남연회 소속 비전교회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광림장학위원회는 1998년 15명의 장학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한 700만원의 장학금으

로 출발이 되었다. 현재는 매년 1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1학과 2학기, 두 차례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광림교회 출석가정의 학생에게는 한 학기에 150만원, 목회자 자녀에게는 200만원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은 9명의 장학위원들이 파트별로 나누어 성적, 봉사, 가정형편 등을 엄격한 기준 하에 공평하게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다.

누구나 매월 1만원으로 미래 인재육성 동참 <1만원 장학후원금>은 매월 1만원을 감사

헌금봉투에 ‘장학’이라고 써서 제출하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교구장학후원금>은 각 교구 장학위원들이 후원하며, <기업후원 장학금>은 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한 학기에 한 학생 이상의 장학금을 후원하는 것이며, <개인명의 기념장학금>도 있다. 기념장학금은 헌금한 성도가 지정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제도로 현재 김덕실·오옥자·이주형 기념장학금이 있다.

신성수 장로는 “2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광림 장학금은 광림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으로 23년째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매월 <1만원 장학후원금>으로 정성을 모아 동참하셔서 모든 광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일 인재들의 미래와 꿈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재원을 더 마련하여 대학원생, 유학생, 신학생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학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본질을 지켜가며 선교하고 성장하는 LFC 청년부

- 목회현장 -



김주송 목사(청년부)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2/3가량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트렌드(온라인)에 편승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선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기초'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연구해보면, 신앙생활의 '기초'와 교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들로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가정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예배, 교제(속회), 선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주일이 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렸고, 가정으로 흩어져서 식사하며 친밀한 '교제(속회)'를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선교)하였습니다.

2022년 LFC 청년부의 목표는 "본질을 지켜가며 선교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매일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 '예배'와 '속회'를 지켜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남지역, 감리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우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LFC 청년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청년 선교는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전히 청년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광림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 신천집사·권사 새로운 다짐

하나님 손 잡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 직분이 필요하지? 주일성수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귀를 막아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입도 막혀서 기도도 되지 않고, 삶의 잣대가 세상에 맞춰져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 신앙생활의 중요성과 가정에서 신앙의 필요성을 느낄 때 즈음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으로 임원전지훈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임원전지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세상을 이끌어간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의 불편함도 나의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라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전도사님께서 속장을 해보라고 권유하셨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못해요'라는 말이 나왔을 텐데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라는 말이 나오더니 속회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공과를 읽고, 온라인 속회를 듣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스스로 찾아가며 속회 준비를 하고 속도원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부족하지만 신기하리만큼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속도원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입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맞춰 살아가던 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이제 좀 신앙인처럼 걸어보지 않을까?' 하며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음마를 내딛는 아기가 넘어질까 봐 두려움에 발을 내딛지 못할 때

내밀어 주신 손... 저에게는 그것이 집사라는 직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년 새해 집사라는 직분 안에서 민음의 선배들을 보며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더불어 성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한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정고운 집사(29교구)

생명을 불어넣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언제 받으셨나요?"라는 전도사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한참 후에야 이 질문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여 동안 광림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위로,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주님께 더욱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그나마 제 감사를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더욱 충실히 예배에 참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게 직분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게 과연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직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판단은 주님만이 하시는 것임을,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주실 때

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라고 하신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신천집사가 되어 임원전지훈련에 참석했을 때, 다른 집회와는 또 다른 모습에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명확히 보이거나 직접적인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회 전체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명령체계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고, 이것이 아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안에서는 부족한 저까지도 체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훈련 기간을 통하여 명확하게 주신 개인 목표, 집사는 1년에 2명 이상을 전도해야 한다는, 그리고 7가지의 신앙생활 원칙을 깊이 새기며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 가야겠습니다.

아직 제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말씀처럼,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 넣는 데에 작은 물방울만큼의 역할이라도 수행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유수종 집사(25교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신천임원으로 부름받은 윤명희 권사입니다. 현재 저는 속장과 사랑부 교사, 중보기도팀 중보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집사의 직분을 받던 때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지금 제가 마땅히 감당할 만하고 답을만한 그릇이었다면 직분을 제 개인의 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기로에 서 있는 제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과 긍휼 그 자체입니다.

2022년 새해에 임원전지훈련에 참석해 담임목사님 말씀을 통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임원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다가올 축복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리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

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용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며, 보호자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만한 임원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지만 악함과 '연약함으로 눈물이며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의 찬양을 읊조리게 하시며 기쁨의 눈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자로, 광림교회의 사명에 협력해 가는 임원으로, 이웃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노력해 가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멋쟁이 하나님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건 감사뿐입니다.



윤명희 권사(22교구)

#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신천장로 6명 세워져

신범식, 우형진, 최제환, 고희동, 배경호, 윤완선 신천장로

2021년 12월 26일(주일) 당회, 구역회에서 앞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신천장로 6명(신범식, 우형진, 최제환, 고희동, 배경호, 윤완선)이 세워졌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에 모범이 되어왔다. 올해의 표어인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에 맞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청지기로서 섬김과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지 신천장로 6명의 다짐과 각오를 들어본다. 유병권 기자



**신범식 장로 <청장년선교위원장>**

청장년부가 광림교회의 독립부서로 활동한지 10여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세우며, 일터에서의 영성을 함께 고민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취업, 결혼, 부부관계, 육아 등 다중적 고민으로 힘든 인생기에 청장년 세대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청장년부 공동체를 이끄는 위원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장년부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기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더디지만 김정석 담임목사님과 교우들의 든든한 지지와 인내의 중보는 청장년 세대가 광림의 견실한 허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청장년부에서의 봉사는 제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장로로 세우시고 다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겸손과 인내로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형진 장로 <사랑부위원장>**

할렐루야! 먼저 믿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사랑부 학생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힘쓰고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일으며 세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과 삶이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질그릇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사랑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부 학생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존귀하게 여김 받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와 교사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최제환 장로 <사회사업위원장>**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부족한 저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광림교회 장로로 피택시켜 주셔서 사회사업위원장의 자리로 불러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님의 은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본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하며 영원토록 의지할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고희동 장로 <고등교육위원장>**

살롬! 광림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시작했던 쌍림동 시절부터 미국 이민 생활 13년을 빼고 지금까지 광림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은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말고 베푸라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족하지만 장로의 직분을 받들어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선한 사역을 성도님

들과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고등교육위원장으로서 고등부 목사님, 고등 1, 2부 부장님 두 분과 40명이 넘는 교사님들 60여 학생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MZ세대는 아니지만 줄곧 연구소 생활을 30여년 동안 젊은 연구원들과 소통하면서 지내온 경험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공동체로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입시가 인생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심한 시대이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고등부에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배경호 장로 <유년교육위원장>**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장로라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선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맞게 솔선수범하면서 청지기의 소명을 다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유년교육위원장의 귀한 직분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지닌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교사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완선 장로 <청년선교위원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장로라는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군생활로 인해 광림교회 출석은 길지 않았지만 처음 교회에 나올 때부터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격려해주시던 교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장로로 세워졌을 때 축하와 격려, 기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완선아! 지금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서 가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선도 감독님과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2



광림뉴스레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성경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사도들의 복음 전파 등 성경 속 생생한 모습을 말씀과 그림 설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집을 연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은 물론 베드로, 바울 등 열 두 사도들의 이야기와 초대교회의 형성, 스테반 집사의 순교 등 복음 전파의 모습이 명화로 펼쳐진다. 성경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소재로 그린 명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루벤스 등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것이다.

광림뉴스레터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 마태복음 1장 18절

북쪽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인 유다 지파의 요셉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처녀였다. 마리아는 곧 다가올 결혼으로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말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



▲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 \_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의 탄생을 알려 주는 장면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성녀(聖女)의 상징인 백합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고 있다. 백합은 마리아의 순결과 정절을 의미한다. 루카 조르다노의 작품

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아담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물음에 천사가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안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의 이런 생각을 안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 수태고지(受胎告知) \_ ‘수태고지(受胎告知, Annunciation)’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 예수를 임신(수태)한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알려 준다(고지)는 뜻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초기작으로, 피렌체 인근 몬테올리벤토에 있는 한 수도원 부설 교회 제단화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제단화와 달리 가로가 더 길고, 실외 배경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마리아는 석관 위에 놓인 독서대를 마주하고 앉아 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왼손을 들어 이를 수용하고 있다. 또 천사 가브리엘은 무릎을 꿇고 마리아에게 순종의 예를 다하고 있다. 마리아가 있는 공간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 앞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 있다. 건축물의 모양 등에서는 수학적으로 치밀한 원근법이 잘 구사되어 있지만, 마리아의 오른팔은 원팔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사람들이 위쪽에 걸린 그림을 올려다보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아도 정면으로 본 것처럼 느끼도록 그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작품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